

PICU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 Sol-NURSING TIMES

SOL은 자살의 소나무를 의미합니다.

제 3호 2012년 1학기



# C O N T E N T S

03 제 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04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빛내주신 분들  
학부모-교수간담회



05 미국 Fairmont State University와 MOU체결  
간호학과와 복수학위취득 프로그램 첫 시동

06 우송대학교 제7회 외국어 경시대회 간호학과 수상소식  
• 토익 경시 대회 수상  
• 일본어 스피치 대회 수상  
• 영어 스피치 대회 수상

07 간호학과 행사  
• 전 학년이 함께한 첫 만남  
• MT  
• 스승의 날  
• 체육대회

08 특강소식  
• 김경아 우송대학교 교수  
•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소장  
• 박옥룡 삼성서울병원 인사팀장  
• 이선희 서울아산병원 간호팀장  
• 이천표 Fairmont State University 교수



09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실습실 소개



12 취업 대박을 터트린 우송대 간호학과

14 하계해외연수  
• 중국 베이징, 칭다오 연수  
• 중국 북경외대 연수  
• 일본 오카야마 현립대학교 연수

15 전국대학생 모의UN대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다



16 동아리활동

16 미국 Fairmont State University로  
복수학위취득을 위해 떠나는 학생 인터뷰의

19 우리들의 이야기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SOL-Nursing Times

편집장 김시은  
발행처 우송대 간호학과 편집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사무실  
☎ 042-630-9290  
우송대 서캠퍼스 보건의료과학관 3층

\* 1년에 2번 발행됩니다.

## 제 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열려...



간호학과 학생들의 제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지난 5월 31일에 솔브릿지 국제대학교 4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선서식은 지난 2010년에 입학한 간호학과 3학년 권선희외 47명의 학생들이 학생간호사로 임상실습에 임하기에 앞서 나이팅게일의 간호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인환교수와 Steven교수의 공동사회로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선서식에는 미국 Fairmont State University의 간호대학 Sharon Boni 학장과 용산 121 미군 병원의 Richard 대령이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축하하기 위해 직접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으며, 축하도 직접 전해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이 외에도 여러 내외 빈들이 참석하여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맞은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선서생들은 글로벌 간호사를 목표로 하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게 외국인 귀빈들을 위하여 한글과 영문으로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낭송하여 귀빈들이 감탄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이번 나이팅게일 선서식의 축하공연으로 후배 들이 준비한 노래와 간호학과 밴드 'NOM'의 공연 그리고 Carl 교수와 Mabena 교수의 듀엣이 선서식의 분위기를 더욱 돋우어 공연이 끝난 후 사람들의 우렁찬 박수갈채와 환호가 이어졌다.



>> 유선지 기자

###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빛내주신 분들



제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는 미국 Fairmont State University 간호대학 Sharon Boni 학장과 용산 121 미군 병원의 Richard 대령 의이강이 대전시 간호사회 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오병열 대전지역본부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상용 원장, 대전 동구보건소 정인호 소장,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학과장 유명란 중령, 베스티안우송병원 나현주 간호부장, 대전한국병원 최윤정 간호부장 등 많은 귀빈들이 자리에 참석하여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의 제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 2012년도 학부모-교수 간담회 개최 -간호학과 재학생 학부모 초청-



2012년 5월 31일, 우송대학교 제 2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끝마치고 선서생들은 자리를 빛내주신 부모님들께 미리 준비한 깜짝이벤트 통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전했다. 그 후 학부모와 교수간의 소통을 위한 학부모-교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학부모들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 받았으며, 학생들의 현장감 있는 실습을 위하여 만들어진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모의병원 Sol-hospital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직접 Sol-hospital을 방문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견학했다. 또한 저녁에는 솔브릿지 캠퍼스에 준비된

만찬시간에 학부모들이 교수들과 대화하며 학과와 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들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의 시대의 흐름에 발 빠르게 준비하는 학교이자,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를 발판으로 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신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 조아라 기자

## 새로운 기회! FSU-WSU Dual Degree Program!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미국 Fairmont State University와 MOU 체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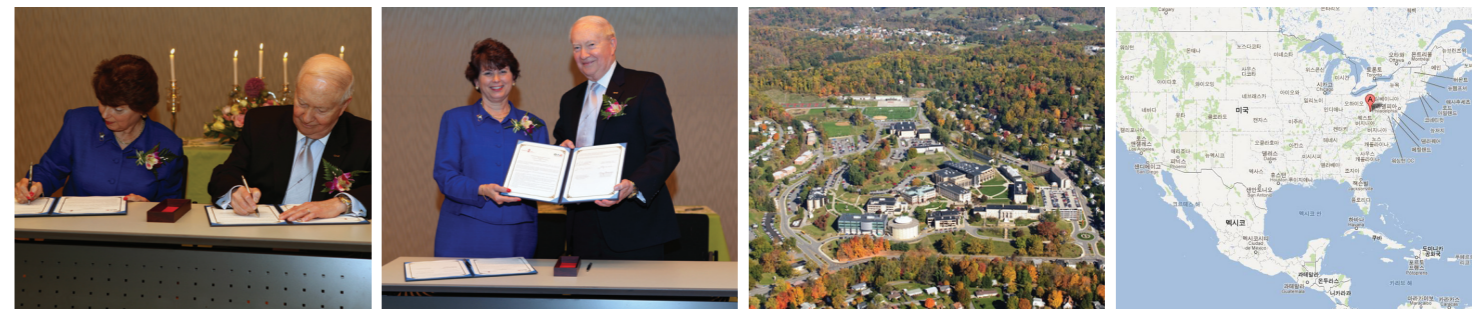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 솔브릿지 국제대학 4층에서 열린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본 우송대학교 (총장 John E. Endicott) 간호학과는 미국 Fairmont State University의 간호대학 Sharon Boni 학장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이전부터 Fairmont State University와 지속적인 교류를 해 온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올해,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우송대학교는 현재 수많은 국가의 자매대학과 협정을 맺어 다양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송대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 중에서 FSU-WSU Dual Degree Program은 이번 처음으로 시행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우송대학교와 Fairmont State University 간호학과가 협정을 맺어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이다. 우송대학교가 FSU에서 수강한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인정해서 2학년 1학기까지 우송대에서 수학한 후, 2년간 West Virginia에 있는 FSU의 간호학과에서 전공공부와 실습을 마치고 졸업을 하여 미국간호사 자격증 취득을 하게

된다.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 4학년 2학기로 복학하여 반학기 동안 우송대학교에 수업과 국시준비를 병행하여 최종적으로 우송대학교 학위와 한국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Fairmont State University 측의 배려로 현지인과 동일한 비용의 등록금을 내는 instate 학비가 적용되어 비싼 미국대학교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지원자격은 학점 3.5이상과 토플 79점이상이며,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 후 최종 인원을 선발한다. 올해 첫 번째 FSU-WSU Dual Degree Program의 참여자로 미국에 가는 자랑스러운 간호학과 학생으로는 3학년 이송하 학생과 안정섭 학생이 있다.

한편, Fairmont State University는 우송대 간호학과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왔는데 특히 두 학교의 간호학과간의 인연은 깊다. 그 일례로, 작년 5월에는 Sharon Boni 학장이 친히 본 대학을 방문하여 간호학과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진행했었고 학생들과 함께 투어를 다녀오기도 했다.

>> 박혜리 기자





### 토익 경시대회 부분 수상



지난 5월 25일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이름이 드높이는 또 하나의 경사가 일어났다. 학과를 빛낸 영광의 주인공들은 1학년 최우원, 2학년 박소희, 조민경, 김지은, 나찬희 학생으로, 우송대학교에서 주최한 토익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상을 수여 받게 되었다. 이 경시대회는 우송대학교에서 매년 전 학과를 대상으로 주최하는 대회로서, 이번 수상은 영어에 많은 투자를 한 우리 학과의 교육 시스템의 성과를 보여주는 기회였다. 이번 경시대회에서 수상을 한 2학년 박소희 학생은 “입상하게 되어서 기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준 혜택에 보답할 수 있는 학생이 되겠다” 라고 자신의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이 학생들은

부상으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1주일 간 베이징과 북경외대로 연수를 다녀왔다.

>> 지다혜 기자

### 일본어 경시대회 부분 수상



우송대학교에는 세계화를 선도하고 다문화 사회의 변화에 적응 가능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외국어 스피치 대회가 매년 열린다. 그 중 하나인 일본어 스피치가 5월 25일에 있었고 간호학과 2학년의 이서진, 김지연 학생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올해 일본어 스피치 주제는 ‘한국의 글로벌화에 대한 자세’와 ‘자신의 미래’가 출제되었는데, 두 학생의 발표 주제는 ‘자신의 미래’로, 서로 어떤 간호사가 될지,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수상자 중 한 명인 2학년 김지연 학생은 “돌 다 일본에 대한 경험이 적어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았을 때는 몇 주간 노력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일본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너무 뿌듯하고, 마냥 좋습니다.”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수상한 두 학생은 오카야마 현립 대학교 단기 연수를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2주간 다녀왔다.

>> 주연주 기자

### 영어 스피치 경시대회 부분 수상



지난 5월 25일에 개최되었던 영어 스피치 대회에서 간호학과 2학년 나찬희, 오혜리, 유다혜 학생이 1위를 거머쥐며 간호학과 위상을 드높였다. 이번 영어 스피치 대회는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할 인재상’을 주제로 우송대학교 전 학과가 참여한 가운데 간호학과 학생들이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1위로 입상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수상은 더욱 값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명예로운 주인공 중 한명인 오혜리양은 “외국에서 거주했던 학생, 작년 수상자들 등 쟁쟁한 후보들 틈에서 잘할 수 있을 지 많이 불안했는데 셋이서 서로 힘을 합쳐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이 결과가 좋아서 영광스러운 1위까지 하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팀원들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교수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수상의 소감을 전했다. 1위를 한 세명의 학생은 부상으로 1주일간 베이징과 북경외대 연수를 다녀왔다.

>> 지다혜 기자

### 모두와의 소통, Membership Training



지난 4월 6일부터 7일까지 금산 삼육 마달피 수련원에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전체 MT가 있었다. 간호학과가 설립된 이래 최초로 1학년과 4학년이 모두 참여한 의미 있는 MT로 선후배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Membership Training이라는 의미가 빛나는 만남이었다. 이번 MT에서는 2학년 박신애 학생과 정성훈 학생이 MC를 맡으며 유쾌한 말씀씨로 매끄러운 진행을 이어나갔으며, 그들의 옆 단상에서는 나병준 학생과 최우원 학생이 원어민 교수님들을 위한 영어 사회를 보았다. 학생들은 교수들과 팀을 이뤄 게임을 하였고, 여세를 모아 1학년들의 장기자랑 그리고 교수님들까지 함께 즐긴 열광적인 댄스타임으로 MT초반의 어색함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렸다는 후문이다.

>> 주연주 기자

### 감사의 마음을 전한 스승의 날!



5월 15일, 우송대학교 정보과학관 101호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스승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늘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위하며 우리학과의 발전을 위해 밤낮을 고군분투하시는 교수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하였다. 사회는 3학년 이지윤과 1학년 최우원 학생이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진행하였다. 강의실에서 1층 계단 앞까지는 학생들이 줄을 지어 길을 만들었고, 교수님이 계단으로 내려오실 때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전 학년은 교수님 한분 한분께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영상과 노래, 그리고 마음을 담은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다. 특히, 학년별로 학생들이 감사의 메시지를 담아 직접 제작한 동영상은 교수님들의 열렬한 환호와 지지를 얻었다. 이번 스승의 날은 훈훈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학생과 교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 조아라 기자

### 'Welcoming Party!' 전 학년이 함께한 첫 만남



지난 3월 22일 목요일, 우송대학교 학생회관 학생식당에서 신입생과 재학생 그리고 모든 간호학과 교수들이 공식적으로 서로 인사를 하는 첫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만남은 1학년 부터 4학년까지 모든 학년이 참석한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했다. 허기를 달래줄 풍성한 뷔페식 저녁 식사와 함께 교수들과 각 학년의 과대들의 멋진 소개와 인사말로 만남의 자리가 시작되었으며, 1학년들의 우렁차고 재치 있는 FM으로 자리의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었다. 이번 행사는 서로와의 만남 을 통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은 새로운 학년, 학기를 시작하며 1년을 보낼 목표와 결심을 다짐할 수 있었고, 학교와 사람들이 생소한 새내기들에게는 소중한 친구와 인연을 만드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다.

>> 조아라 기자

### 모두가 한마음! 간호학과 체육대회!



5월 10일, 11일, 우송대학교에서는 이틀에 걸쳐 체육대회가 열렸다. 간호학과 역시 이번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과와 경쟁하고 응원하며 체육대회를 즐겼다. 이번 체육대회에서 간호학과는 아쉽게도, 발야구, 축구, 농구, 피구, 줄넘기, 계주 부문에서 우승을 양보해야만했다. 축구도 간만의 차이로 아쉽게 자리를 내주고, 줄넘기 또한 본선에 진출 했으나 아슬아슬한 차이로 떨어져버렸다. 하지만 학업과 야자로 심신이 지친 학생들에게 활기를 불어 주었고 같이 경기에 참여하고 응원하며 간호학과 학생들 사이의 결속력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무더위를 날려줄 아이스크림과 시원한 음료, 질주동아리에서 주최한 시음회에서 맛 볼 수 있었던 알쏭달쏭한 음료 또한 행사의 잊을 수 없는 묘미였다.

>> 조아라 기자

## 특강 소식



### 삼성서울병원 12년 간의 경험, 김경아 교수님

2012년 상반기 특강의 문을 연 것은 올 해 새로 부임한 김경아 교수의 특강이었다. 3월 27일 김경아 교수는 자신이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경험과 취업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전하며 학생들의 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도왔으며 삼성서울병원의 면접 기준이나 취업을 위해 갖춰야 할 자질들에 대하여 설명하여, 취업을 앞둔 4학년들은 물론, 1, 2, 3학년 학생들에게도 취업 동기를 부여하고 특별했던 강의를 진행했다.



### 신촌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인요한 소장님

4월 12일 인요한 소장은 의료측면에서 동서양이 가지는 견해의 차이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이번 강의에서 인요한 소장은 한 문제를 바라보는 동서양의 시각 차이를 설명하며 이를 극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은 동서양의 서로 다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 배웠으며 글로벌 간호사로서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내용뿐 아니라 강의 중간 중간 인요한 소장의 유머가 돋보였던 강의였다.



### 삼성서울병원 박옥룡 인사팀장님

4월 25일 박옥룡 인사팀장은 자신의 직책을 십분 이용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삼성서울병원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덕목과 인성 등 실질적인 취업과 관련된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인사 담당자가 말하는 취업 관련 강의였던 만큼,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하며 최신의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여 강의에 참석했고, 특히 4학년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특강이었다.



### 서울아산병원 이선희 소아청소년병원 간호팀장님

5월 25일 열린 이선희 간호팀장의 특강은 '좋은 간호사가 되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존의 취업을 위해 갖추어야 할 스펙이나 외국어 능력 등의 기준을 알려주는 강의가 아니라 간호사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가르쳐 준 강의로서, 환자들을 대할 때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학생들이 간호사로서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고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 미국 Fairmont State University 이천표 교수님

5월 30일 우송타워 6층에서 진행된 이천표 교수의 특강은 강연의 주제가 '간호사'로만 국한된 것이 아닌 '직업'에 관한 내용을 다뤄 더욱 색달랐다. 이천표 교수는 과거와 현재의 직업 순위를 비교하고, 좋은 직업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강의하였으며 직업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천표 교수의 특강은 간호사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비전까지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 Sol-Hospital 탐방기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어떠한 타 대학교와 비교를 거부하는 최신키 시설을 자랑하는 실습실 'Sol-Hospital'이 있다. 이번호에서는 Sol-Hospital을 낯날이 파헤쳐 보자.

먼저, 5층 시뮬레이션 실습실로 가보자. 입구는 Sol-Hospital 간판과 멀리서 보이는 나이팅게일의 모습과 함께 복도에서 투명하게 보이는 실습실 전경이 첨단 간호실습실이란 인상을 먼저 가지게 된다. Sol-hospital은 최첨단 의료 시설을 갖춘 모의병원으로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학생들의 임상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professional education, 즉 시뮬레이션 실습이 전문화된 교육에 특화되어 있다.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PICU), Intensive Care

Unit(ICU), Delivery Room & Operating Room 으로 구성된 각 시뮬레이션 실습실과 각 강의실 및 debriefing Room이 연계되어 배치되어 있다.

Sol-Hospital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자. 들어서자마자 시원하게 Nurse station과 형광등 불빛위로 보이는 나이팅게일의 모습이 간호학생인 우리에게 다시한번 간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Nurse station에서 보이는 복도의 전경은 세련됨에 다시 한 번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 Sol-Hospital 입구 전경 >

< Nurse Station >

< Sol-Hospital 복도 >



<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

먼저, 투명한 유리창으로 보이는 12명의 신생아모형이 누워있는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이 눈에 들어온다. 이 모형들은 실제 신생아들의 체중과 유사하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신생아 간호를 배우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중앙 침대에는 첨단 시뮬레이션 장비중 하나인 SimJunior가 누워있는데 SimJunior는 말하고 숨을 쉬는 6세 소아 환자이다. 건강한 상태

및 활력징후도 불안정하고 의식도 없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다양한 소아환자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로 통해 학생들은 병원 내 또는 병원 전 상황에서 소아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적인 술기와 능력을 평가 및 학습하게 된다. 이 실습실에는 미숙아모형과 인큐베이터, 영아가온장치 등도 비치되어 있다.

두 번째 실습실은 Intensive Care Unit으로 성인간호시뮬레이션 실습이 가능한 SimMan이 있다. 실제 사람과 매우 유사하고 각종 증상과 환경을 컴퓨터로 제어할 수 있는 SimMan 등의 장비는 임상 시나리오에 따른 학생들 실습장면은 이 방에 설치된 카메라 녹화장치를 통하여 학생들이 실습한 내용을 debriefing room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Debriefing room은 넓은 공간에 책상과 의자가 있으며 또 앞에 자유롭게 지우고 쓸 수 있는 보드와 여러

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어 학생들과 교수들이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고 녹화된 비디오를 통해 재검토하는 피드백 과정이 이루어진다. Operating room은 hand washer, operation bed, 최신 LED operation light, 분만모형 등으로 실제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최신식 기구들을 구비, 실제와 매우 유사한 실습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2층으로 내려가 보자. 복도를 통해 기본간호학 실습실과 기초간호과학실습실이 눈에 환하게 들어온다. 2층 기본간호학실습실에는 주요 기본간호학 실습모형이 배치되어 있다. 특히 혈관주사모형은 총 9개의 피하주사모형과 정맥주사모형 9개를 동시에 사용하여 신규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혈관주사 실

습을 졸업하기 전에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외 근육주사모형, 외관삽입모형, 도뇨관모형, 기관절개관모형 등 기본간호수술을 충분히 연마할 수 있는 모형들을 구비하고 있다. 물론 이론을 배울 수 있는 강의실도 같이 배치되어 있다.



< Intensive Care Unit > < Operating room & Delivery Room > < 각 실습실마다 있는 Debriefing room >



< 2층 실습실 복도 > < 기본간호학 실습실과 강의실 >

4층으로 가보자. 4층 입구의 Nursing Care Unit 뒤 유리창으로 보이는 세련된 실내 모습이 또 다른 기대로 들어가 보게 된다. 4층 실습실에는 중앙공급실(Central Supply Room, CSR), 기본간호학 실습실, OSCE Room(Objectively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Health Promotion Clinic, 탈의실로

이루어져 있다. Nurse Station뒤로 위치한 Central Supply Room(CSR)은 효율적 장비 및 물품 관리를 위하여 마련되었는데 실습을 위한 물품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진다. 건강사정 물품과 장비, 각종 CPR모형, 의료소모품, 의료장비, 각종 기자재 등이 중앙관리 하에 있다.



< 2층 기본간호학 실습실 각종 모형과 뒤쪽 전경 >



< Nursing Care Unit 입구 전경 > < Nurse Station과 뒤에 위치한 Central Supply Room 내 모습 >



< 각종 해부학 모형 > < 미세현미경과 미생물실습관련 장비와 기자재 >



< Healthcare Promotion Room과 복도 전경 > < OSCE Room >

OSCE Room은 1개의 강의실과 외래진료실 총 4실로 이루어져 있고 OSCE Room에서는 건강사정 수업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환자를 면담하는 방법과 기술을 훈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Health Promotion Clinic은 건강상 문제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일종의 양호실이다. 쉴 수 있는 침대와 기본적인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다. 간호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가 상주하여 전반적 실습실 관리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맡고 있다.

기초간호과학 실습실은 해부학과 미생물학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각종 해부학 모형과 균을 배양할 수 있는 clean bench와 배양된 균을 확인할 수 있는 20대의 고가의 미세 현미경을 구비하고 있다.

### 취업에서 대박낸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대전에 위치한 우송대학교! 그리고 그 우송대학교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첫 취업시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졸업예정자 29명중 무려 52%인 서울대학교병원에 합격하였다. 김보미 등 4명 서울대학교병원, 김재영 등 11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그 외 우수 대학병원 및 병원 채용에도 합격하였는데 하나름 등 4명 서울아산병원, 공신희 신촌세브란스병원, 남경희 서울삼성병원, 정아란과 박근정 2명 충남대학교 병원, 김소영 부산대학교병원, 배고운 계명대학교동신병원, 오선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등 바늘구멍같은 취업문을 두드려 여는데 성공했다. 간호사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병원에 성공적으로 취업한 학생들은 입을 모아 독특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육이 자신들을 갈고 닦는 데에 좋은 윤택유가 되었다고 한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현재 우수한 글로벌 간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외국어교육에 힘쓰는 한편 우수한 교수진이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전폭적으로 보내주고 있다.

>> 남궁희수, 최재필 기자



### 우송대 간호학과 졸업예정자(29명)의 52%, 서울대학교병원 취업 확정

서울대학교병원 15명, 서울아산병원 2명,  
삼성서울병원 1명, 부산대학교병원 1명 취업 확정

#### 합격자 명단

- 공신희 (서울대)
- 김보미 (서울대)
- 김소영 (부산대병원)
- 김수영 (분당서울대)
- 김재영 (분당서울대)
- 김혜지 (분당서울대)
- 김호수 (분당서울대)
- 남경희 (삼성서울)
- 문형주 (분당서울대)
- 배소현 (분당서울대)
- 서민정 (서울대)
- 손지하 (분당서울대/서울아산)
- 시현지 (분당서울대)
- 정두리 (분당서울대)
- 최시정 (분당서울대)
- 최윤정 (서울대)
- 하나름 (분당서울대/서울아산)
- 기나다순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합격 소감을  
자신있게 말하다!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예비 졸업생, (가나다순)



공신희 (세브란스병원)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된 지 벌써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취업이라는 문턱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4학년년을 시작하는 제 마음은 부담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 졸업생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 우리가 잘되어야 후배들이 더 잘 될 것이라는 그 부담스러움은 정말 큰 짐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그 결과 또한 좋지 않았나 싶네요. 병원 이력서 준비와 면접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 더 생각해보고 알아 볼 수 있었으며, 제 자신뿐만 아니라 동기들과 서로 함께 의지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로 제 소감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힘써주신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I made it. Why not you? You can make it. 모두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화이팅입니다!



김보미 (서울대학교병원)

먼저 대한민국에서 양아주는 서울대학교병원에 합격해서 너무 좋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셔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기쁜 면보다 그곳에서 버티나가야 하는 것이 막막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잘 적응하고 후배들을 위해 길을 닦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니다. 후배님들은 저 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미러리 준비하는 것 추천합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는 병원별로 예전에 나왔던 족보를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나눌 수 있는 간호 관련 지식도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학점관리와 영어 성적 관리인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합격 발표가 났다는 소식에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고 합격을 확인했을 때 너무나 기뻐서 같이 면접을 봤던 친구들도 함께 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기쁨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지난 3년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취업 준비는 결코 4학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난 3년간의 노력들을 정리하고 다듬어진 것을 내가 가고 싶은 병원에 보여주는 것이 4학년의 마지막 임무이자 졸업 전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호학과는 타 학과와 달리 취업 준비를 일찍 해야 합니다. 특히 토익 성적은 하루아침에 올리는 것이 힘들니까 1,2학년 때 꾸준히 노력해서 2학년 겨울 방학까지 토익 성적을 받아 낚아 후배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경희 (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이라는 좋은 병원에 취직하여 일단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큰 병원이라는 것과 복지, 페이 그리고 업무환경이 좋다는 것 등등 많은 메리트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은 간호사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할 때 제가 4-1학기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학과활동, 대외활동, 성적 등을 학년 별로 정리해, 이를 바탕으로 제가 목표로 하는 병원, 상향지원하는 병원, 하향지원하는 병원 총 3개를 잡았고, 이 병원들이 맞추어 면접준비와 이력서 작성을 연습했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력서를 쓰면서 저만의 차별성을 두어야 경쟁력의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후배님들은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해서 자신만의 차별화 된 이력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아란 (충남대학교병원)

벌써 4학년이 된 지 반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이제 어느 정도의 취업을 끝내고 국가고시를 봐야 되는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 저는 운이 좋게 충남대학교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취업을 준비하면서 우리 우송대학교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1기이고 영어의 특성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학점도 중요하지만 영어 또한 취업을 하는데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학기가 남았습니다. 남은 학기동안 열심히 학업에 집중하여 국가고시도 무사히 합격하여 '역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라는 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9학번 화이팅! 우송대 간호학과 화이팅!!



하나름 (서울아산병원)

합격소식을 받은 지 약 3주가 되었는데 아직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약 4년 동량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합격 소식을 받을 때까지 항상 함께 준비해주고 지지해 주셨던 교수님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취업을 위한 준비로는 취업희망병원 사이트를 이용했는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병원과 간호부의 비전, 미션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했습니다. 그 후에는 동기들과 예상 질문을 준비하면서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주며 좋은 점, 개선해야 할 점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이 정말 이것만큼은 꼭 해두었으면 하는 게 있는데,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파악하는 것입니다. 한 달 또는 한 학기마다 여러분들이 했던 봉사활동, 학과활동, 동아리활동 등에 대해 정리를 하고 그것을 통해 얻은 것들을 정리해보면 취업을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도 철저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취업대박을 터트린 우송대 간호학과



### 하계 해외 연수



저는 제 7회 우송 외국어경시대회 입상자로서 자격을 얻어 2012년 7월 30일부터 2012년 8월 5일, 7일간 중국의 베이징과 칭다오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북경외국어대학교에서 들은 두 번의 수업은 중국의 사업 문화와 중국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에 관한 것이었는데 평소 간호학과라는 전공 안에서 국한되어 들던 수업과는 달리 다른 전공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 북경에 있는 동안에는 이화원, 고궁(자금성), 전문, 왕부정, 수수가와 같은 유명 관광지를 직접 볼 수 있어 매우 신기했습니다. 중국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볼 수 있었던 것도 이번 연수의 장점 중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공자가 살던 곳인 공부, 공자 가족의 무덤이 있는 공림, 그리고 공자의 사당이 있는 공묘를 모두 돌아보는데 그 동안 멀게만 느껴지고 교과서 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공자에 대해 한층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해외 연수를 다녀와 보니 모든 스케줄과 식사시간에 학교 측의 배려가 녹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더 신경을 써주다 보니 더 좋은 곳에서 숙박하고 더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과 같이 이번 해외연수도 너무나 즐겁고 유익한 체험이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공부에 계속 좋은 자극제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 2학년 박소희 - 우송 외국어 경시대회 입상

중국을 가본 경험이 없던 저에게 이번 연수는 중국을 여행하고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말로만 들던 북경 외대를 방문했는데 정말 크고 넓은 곳이었는데, 북경외대의 기숙사를 사용하면서 우리 학교의 기숙사의 좋은 점들을 새삼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와서 영어로 수업을 들었던 경험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중국교수님들도 영어를 정말 잘 하시고 어떤 분은 영국식 발음을 구사 하셔서 인상에 깊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명 관광지를 다니면서 많은 아름다운 곳을 보고 역사의 흔적을 보면서 정말 놀랍고 재미있었지만 아쉬운 점은 그런 장소들을 충분히 볼 시간을 주지 않아서 기억에 남는 것이라곤 사진 찍느라 바빴다는 점입니다. 좀 더 자율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다면 더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궁극적으로 제일 아쉬운 점은 영어로 입상해서 오게 된 해외 연수지가 영어권 지역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돌아다니고 싶을 때 말이 통하지 않고 어딜 가거나 중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이나 교수님께 의존해야 했는데 의사소통이 되었다면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외 연수를 함께 참가한 사람들과 친해지고 서로 대화했던 시간은 정말 귀중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더 노력 할 것입니다.

#### >> 2학년 유다혜 - 영어 스피치 입상



후배들이 다음 번엔 꼭 일본어 스피치 대회에 참가해 이번에 제가 체험한 오카야마 현립 대학교에서의 1주일간의 수업, 2박 3 일간의 홈스테이, 2박 3일 간의 오사카 자유여행 등 알차고 재미있는 일본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 >> 2학년 김지연 - 일본어 스피치 입상

저는 7월 30일 늦은 저녁, 오카야마에 도착한 후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오카야마시에 위치한 도요코인 호텔에서 숙박하며, 오카야마 현립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후 남은 일정은 2박 3일간, 오사카를 돌아다니면서 오사카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번 연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홈스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홈스테이를 통해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일본의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홈스테이 가정은 TV에서나 볼 법한, 정원이 딸린 일본 전통 가옥이었습니다. 물론 집 안은 다다미가 깔려있었고, 일본의 전통적인 가구들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는 불꽃놀이, 수박 깨기, 나가레소멘 (흘러보낸 국수를 건져 먹는 음식), 마츠리 등 일본의 문화들을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홈스테이는 저 같은 유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없는 값진 경험을 주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분들과는 엄마, 아빠, 딸이라는 호칭을 쓰고 아직까지도 꾸준히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2주일간의 연수는 저에게 많은 지식을 부여해주었지만, 2박 3일간의 홈스테이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주었습니다. 우리 간호학과

## 전국대학생 모의UN대회에서 리저십을 발휘하다

### " 제18회 전국대학생 모의 UN회의 간호학과 윤단비 사무총장 맡아..."



유엔한국협회가 주최하고 외교통상부에서 후원하는 제18회 전국대학생 모의 UN회의가 7.4(수)~7.7(토) 3박 4일간 우송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유엔에 대한 이해와 국제 협력 의식을 고취하고, 유엔 회의와 외교 교섭 과정에 대한 간접경험을 체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전국 66개 대학교에서 총 459명이 이번 전국대학생 모의 UN회의에 참가 했다. 전국대학생 모의 UN회의는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단, 회의를 준비하는 사무국, 회의를 참가하는 대표단(Delegate)과 회의를 참관하는 옵저버(Observer)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번 전국대학생 모의 UN회의에는 참가

대학은 총 4개위원회(한국어위원회 2개, 영어위원회 2개)에 위원회별로 각 1팀 (2명)씩 총 8명 이내의 학교 대표를 선발 하여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각 위원회별로 추첨을 통해 미리 국가를 배정 받고 국제사회의 과제를 토론하고 협상과 타협을 통해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번 위원회별 주제는 핵 테러 대응 및 핵 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1위원회), 이주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범세계적 노력(2위원회),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방안(3위원회)과 새천년 개발 목표 이후의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 협력 목표와 개발 협력 목표와 체제(4위원회)가 있었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토대로 우송대학교는 이번 전국대학생모의 UN 회의를 주관하면서 아시아 최고의 특성화 대학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전국대학생 모의 UN회의에 참가한 학생들은 모의 UN회의에 참가하는 기회를 통해 외교, 국제관계, 논리 있게 말하는 법, 협력 등을 배우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 >> 박혜리, 남궁희수 기자



저는 제 18회 전국대학생 모의 UN회의의 사무총장을 맡은 간호학과 4학년 윤단비입니다. 이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20대의 다양한 청춘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대회 기간에는 자신의 미래와 꿈을 위해 3일 내내 밤을 새며 토론을 펼치는 20대의 '핫'한 청춘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미래를 논하며, 20대답지 않은 프로다운 모습으로서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느낀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낀 후, 저에게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과 미래를 위해 언 얼마나, 어떤 열정을 쏟아 붓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20대를 보내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들과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나 이렇게 20대를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다.' 라고 평평이 말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며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들과 대회에 대해 많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후회의 과정을 지나기 전에 다시 한 번 자신의 20대에 대한 진지한 통찰과 자문을 해보는 기회를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인이 되어 20대를 돌아볼 때 '아, 나의 20대는 허머 그 자체였구나! 최선을 다해 살았어!' 라는 자평을 내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간호학과 여러분 더 힘을 내봅시다!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서진입니다. 제18회 전국 대학생 모의 UN 회의는 전국 대학생 대상의 대회 중 가장 큰 대회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로서 올해 약 460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저는 사무차관으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을 도와 사무국의 코디네이터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학교의 여러 학생들과 만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코어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리더십, 서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의 예의와 자세,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등 서로 부족한 점은 도어가며 준비해나갔습니다. 약 4개월 동안 매주 진행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가지면서 서로 피드백을 통한 상호보완의 과정 또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큰 규모의 대회를 주최하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참여하면서 행사의 진행에 필요한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고 간호학과 학생이지만 간호학뿐만 아니라 영어 및 외국어의 중요성과 사고의 방향도 넓어졌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저는 이 배움을 발판삼아 앞으로의 학교생활에도, 제 자신의 발전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소 학과 생활도 충실히 임하면서 학교에서 증명하는 여러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참여하고 도전한다면 더 많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답지 않은 프로다운 모습으로서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느낀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낀 후, 저에게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꿈과 미래를 위해 언 얼마나, 어떤 열정을 쏟아 붓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20대를 보내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들과 비교하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나 이렇게 20대를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다.' 라고 평평이 말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며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들과 대회에 대해 많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후회의 과정을 지나기 전에 다시 한 번 자신의 20대에 대한 진지한 통찰과 자문을 해보는 기회를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인이 되어 20대를 돌아볼 때 '아, 나의 20대는 허머 그 자체였구나! 최선을 다해 살았어!' 라는 자평을 내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간호학과 여러분 더 힘을 내봅시다!

### Rachel's Book club 활동하며 영어실력이 쑥쑥!



우송대 간호학과 학생들은 여름학기에 영어공부와 독서를 함께 할 수 있는 Book Club 활동을 Rachel(이인환)교수의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인환 교수가 외국 도서 목록 중 몇 권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추천하면 학생들이 그 중 한 권을 선택하고, 같은 책을 선택한 인원이 8명 정도 모여 하나의 클럽을 구성하여 함께 영어공부를 하는 것이다. Stuart Little, Pride and Prejudice, Harry Potter, Holes 등 중 선택한 책을 각자 읽어 온 후 함께 모르는 부분을 해석하고 토론하며 적극적인 방식의 영어공부를 하고 있다. 학생들은 영어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원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영어 원서를 읽고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어 듣기 파일을 듣고 발음 교정을 하며 영어실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남궁희수 기자

### Join Woosong Nursing Book Club!

“To read is to fly: it is to soar to a point of vantage which gives a view over wide terrains of history, human variety, ideas, shared experience and the fruits of many inquiries.”

- A C Grayling

“A capacity and taste for reading gives access to whatever has already been discovered by others.”

- Abraham Lincoln

If you want to broaden your mind and nourish your soul as well as improve your English skills, I strongly recommend you to read English books such as classics, novels, essays, and more! In Spring semester, I introduced a few English books to Woosong Nursing students who took my listening and reading class. Although it may have been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a novel written for native speakers of English, many of them found it interesting and helpful to read the novel as listening to the audio file. They reflected on the book, found some valuable lessons and applied them to their own lives. I am very proud to share some pieces of their work!

>> 이인환 교수님



### Ambassador 클럽 유창한 영어로 귀빈들과 간호학과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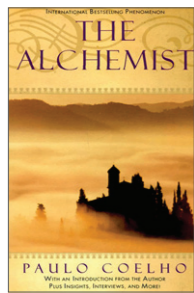


5월 31일, 6월 1일,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5월 31일에 있을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앞두고 큰 손님들을 맞았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참석하기 위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를 방문한 Fairmont State University의 Dr. Sharon Boni와 Col. Richard Knowlton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특히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측이 직접 요청한 방문이었기 때문에 이번 방문은 더욱 특별했다. 이에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English Immersion S class 학생들과 나정민, 나찬희, 안정섭, 유선지, 송주은, 이수정, 이승하, 이현주를 구성원으로 한 우송대학교 Ambassador 클럽을 조직, 간호학과의 귀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우송대학교 Ambassador 클럽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의 자랑인 Sol-Hospital을 소개해, 귀빈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최첨단 실습설비를 갖추고 있는 Sol-Hospital을 둘러본 뒤 Col. Richard Knowlton은 “이렇게 훌륭한 시설은 처음이다.”, Dr. Sharon Boni는 “이렇게 좋은 환경이 놀랍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 최재필 기자

### Reflection on Alchem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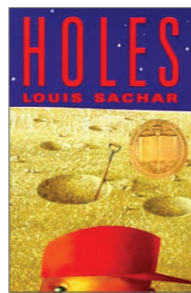
It was impressive that Santiago undergoes a terrifying ordeal and overcomes it; however, I was especially impressed at the very last part. People can get the similar opportunity with other people. Many things can be changed based on one's attitude to accept the opportunity. Santiago and one of the solder(leader) had the same opportunity. Santiago did his best to find treasures and eventually achieved his goal, but the leader didn't. Finally, the leader couldn't find any treasure. A great opportunity like Santiago's treasure may come to me. I don't know exactly what it is. Maybe I have that kind of opportunity now.

“Whoever you are, or whatever it is that you do, when you really want something, it's because that desire oriented in the soul of the universe. It's your mission on earth.” – page22

“And, when you want something, all universe conspires in helping you to achieve it” – page22

>> 2학년 남보금

### Book Report on Holes



Stanley was sent to Camp Green Lake. It is a camp for juvenile delinquents. After Stanley arrived at Camp Green Lake, he met new people. While digging the hole, boys were fighting. Zero was really angry, so he ran away. Soon, Stanley also escaped from Camp Green Lake and tried to find Zero. When they arrived, Stanley dug the hole where he found the gold tube. Finally, Stanley and Zero were released from that horrible Camp Green Lake. When I first read HOLES, I could not figure out what kind of book it is. I was confused because there were so many different stories. But when I read it, all the stories were matched in some way. I was truly amazed. I felt Stanley was a really kind boy. He taught Zero to read and helped him to survive. I hate people who were living in Camp Green Lake. Especially Warden. I can't believe how cruel she was. And I think Katherine Barlow and Sam were very sad couple. Why did people think a black man and a white woman can't fall in love? Anyway I want to read another fun book like HOLES. This book was really interesting.

>> 1학년 이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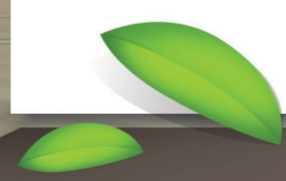


### 간호학과 첫 SSAT 시험 응시에 후배들 응원나서...



지난 6월 16일 4학년 선배들의 첫 SSAT을 위해 1, 2, 3 학년 후배들이 응원 길에 나섰다. SSAT는 SAMSUNG APTITUDE TEST라 불리는 삼성직무검사이다. 이 시험은 학력 또는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폭넓은 지식으로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삼성만의 시스템이다. 우송대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은 이 시험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으로 SSAT를 응시하였고,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뒤따라 후배들이 나섰다. 약 1700여명의 수험자들 중 29명의 우송대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해 아침 일찍 7시까지 후배들은 초콜릿과 비타민 음료를 준비하였고, 그들의 응원메시지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선배들을 열심히 응원을 하였다.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응원하러 왔던 우송대 간호학과 후배들은 선배들의 좋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다고 한다. 선배로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후배로서 선배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선후배의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았다. 이 일을 계기로 더욱더 선후배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교수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배들의 응원이 선배님들에게 이어지는 새로운 전통이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한다.

>> 박신애 기자





## 미국 Fairmont State University로 복수학위취득을 위해 떠나는 학생 인터뷰



### Q: FSU-WSU Dual Degree Program이란 어떤 유학 프로그램인가요?

**안** 우송대학교가 FSU에서 수강한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인정해서 2년 간의 ASN(Associate of Science in Nursing) 학위 과정을 마친 뒤 졸업을 하고 NCLEX-RN로 미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합니다. 그 다음, 우송대학교 4학년 2학기로 복학하여 한 학기 뒤에 졸업을 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해 대한민국 간호사 면허 취득까지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Q: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였나요?

**이** 1.2학년 동안 우송대 간호학과에서 제공하는 TOEFL, TOEIC, 원어민 교수들과의 영어회화, 의료통역 수업들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그 후 1년간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다녀오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TOEFL 성적은 물론 실제 전공공부에 임하기 전 기초를 탄탄히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 Q: FSU-WSU Dual Degree Program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안** FSU-WSU Dual Degree Program에 참여하게 되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 우송대학교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간호학은 학문의 특성상 폭넓고 깊은 지식을 4년 간의 짧은 대학 과정 안에서 소화해야 하기에, 국가고시 대비와 참된 간호사의 자질을 갖추기에도 여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간호학과와 저희 학생들을 믿어주신 우송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을 진정한 글로벌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교수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세워둔 계획이 있나요?

**이** 2년간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미국 학생비자인 F1 Visa 를 받기 위하여 약 2~3주에 걸쳐 함께 가는 이승하 학생과 서로 도와 가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부했던 전공 과목들을 복습하고 영어공부 또한 틈틈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Q: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소감은 어떤가요?

**이** 첫번째로 이번 복수학위 제도에 참가하게 되어 너무나 기쁜 마음이지만 한편으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Fairmont State University에서 전공공부와 실습을 함께 있어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 공부하여 훌륭한 우송대 출신의 간호사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더 발전하여 더 많은 후배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Q: 미국에서의 학업계획을 들려주세요.

**안** 저는 지난 2010학년도 겨울방학에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미국 조지아주 Kennesaw State University 간호학과에 약 1달 동안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는 미국 대학생들과 함께 간호학 수업을 청강할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언제든지 상관없이 질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정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일단 그러한 능동적인 학생 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의 내용을 미리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미국에서는 아마 예습 위주로 학업 계획을 짜지 않을까 합니다. 강의 이후에는 우송간호에서 자율학습을 계속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 매일 꾸준히, 규칙적으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 Q: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이** 전공공부와 영어공부를 동시에 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송대에 처음 들어왔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영어실력이 정말 많이 늘어난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토익과 토플성적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원서로 공부하는 전공공부에도 매진하여, 많은 후배님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바랍니다.

## 우리들의 이야기

### Q: 현재 4학년 선배님들 한 분 두 분 취업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취업을 위한 노력, 4학년이 된 후 소감 및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 주세요^^!

**A.** 멀게만 느껴지는 취업시즌을 맞게 되어서, 벌써 취업한 친구들도 있고, 아쉽게 계속 도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은 모두 다 잘 될까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취업준비를 하면서 후배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 세워 자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뒤쳐진다고 자신을 비하하지도 마세요. 자신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언젠간 그 노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영어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단연 돋보였던 것은 “영어”였습니다. 다시 한 번 영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특권! 영어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4학년 과대표 정아란

### Q. 현재 3학년 선배님들 열심히 실습 중이신데요! 실습 소감,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우송간호 여러분! 저는 강남 세브란스 42W아동병동에서의 2주간의 첫 실습을 마치고 현재는 대전에서 여성건강간호학을 실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이 제 인생의 첫 실습이라 설레기도 하고 무엇보다 ‘실수하면 어찌지...’, ‘대답을 못하면 어찌지...’ 등등의 막연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실습을 마친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의 정체는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여덟 시간 동안 서있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그리 녹록치않은 않지만 책에서 제가 배웠던 것들을 임상에서 생동감 있게 실제상황으로 펼쳐져 있는 그 곳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가슴이 벅찬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과목에 정진하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잖아요! 늘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임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편한 간호화를 준비해준다면 서있는 8시간이 덜 피로할 것입니다.) PRIDE우송간호 파이팅!

- 3학년 과대표 권선희

### Q. 한 학기 동안 학과의 여러 행사를 주도하여 진행한 소감이 어땠나요?

**A.** 무슨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저에게 큰 부담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맡은 직책인 과대로서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한편으로는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과대생활 하면서 2학년 친구들에게 여러 정보를 전해주는 작은 알림 역할부터 큰 행사인 나이트게일 선식식까지 여러 일들을 성실하게 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또 뒤에서 묵묵히 다수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참으로 힘들지만 이리저리 뛰고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아주 사소하지만 내가 잘못함에 있어서 다른 다수가 피해를 본다는 것, 내가 잘하면 일이 잘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명 앞에 설 때는 예의를 차리고 격조 있게 해야 함을 알았고 교수님께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언제나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한 대가가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는 행사라면 준비 해놓은 입장에서 보면 뿌듯할 것입니다. 여러 행사들을 통하여 정말 웃고 떠들며 때로는 혼나며 준비해온 과정들이 하나의 결실로 맺어질 때 뿌듯함과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 2학년 과대표 우준원

### Q: 안녕하세요 벌써 간호학과에서의 생활이 한 학기가 지났어요 대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느낀 점, 앞으로의 계획 및 미래의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 주세요.

**A.** 먼저, 대학교 1학년 1학기가 벌써 지나가게 된 것이 아쉽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교에 들어와서 간호학과의 바쁜 일정에 적응을 해 나아가는 것이 옆에 친구들이 있었기에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우송대 간호학과에서 1학년 과대표를 맡았는데, 미숙한 일 처리에도 잘 따라준 동기 친구들에게 너무 많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많은 즐거움과 보람이 있었네요. 앞으로도 모두가 아무 탈 없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했으면 합니다~!

- 1학년 과대표 김도연



제 3호 2012년 1학기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